

# 남원시, 광한루 건립 600년 문화행사 '풍성'

어린이날 등 무료 개방 확대  
매일 40명 광한루각 올라가기  
시, 연중 다채로운 행사 마련



남원시가 광한루 건립 600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광한루 전경. (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광한루 건립 600주년을 기념해 무료 개방일을 확대하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동안 추석과 설 연휴 등에만 입장료를 받지 않았지만, 올해는 어린이날인 5월 5일, 제89회 춘향제 개막일인 5월 9일, 소설 속 성춘향의 생일인 5월 12일, 몽룡과 춘향이 처음 만났다는 6월 7일(단오), 견우와 직녀의 만남 일인 8월 7일(칠월칠석), 한글날인 10월 9일에도 무료 입장할 수 있다.

10월까지의 무료 야간 개장시간을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해 운영한다.

'2019 봄 여행 주간'인 다음 달 12일까지는 매일 40명에게 광한루 각에 올라갈 기회를 준다.

남원시는 또 8월 2~10일을 '광한루 600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축하공연, 다북 행사, 탁본 체험, 한여름 밤 춘향 영화제 등의 행사를 열 계획이다.

앞서 남원시는 올해를 '광한루 방문의 해'로 정하고 지난달 11일 기념 현판을 제작해 내걸었다.

광한루원 안에 있는 광한루는 조선 초기인 1419년에 지어진 목조 건물로 평양 부

벽루, 진주 축석루, 밀양 영남루와 함께 우리나라 4대 누각으로 불린다.

1597년 정유재란 때 불탄 것을 1626년에 복원했으며 보물 제281호로 지정돼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600주년을 맞은 광한루와 광한루원을 시민과 관광객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료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지난 29일 정음 입암면 철도산업농공단지에서 열린 다원시스 정음공장 기공식에서 참석자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정음시 제공)

## 정음에 전동차 생산공장 들어선다

다원시스, 330억 투입 연간 300량 제작

전동차 제조업체인 다원시스가 정음에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하고 지난 29일 기공식을 가졌다.

다원시스 정음공장은 내년 3월까지 330억원이 투입돼 정음 입암면 철도산업농공단지 안의 부지 8만2786㎡에 전체 건물면적 2만428㎡ 규모로 건립된다.

다원시스는 전동차 제작 공장과 시험장을 함께 갖춘다.

정상 가동되면 연간 300량 가량의 전동차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일자리 70여개가 만들어진다.

다원시스는 코스닥에 상장된 전동차와 발전기, 전기변환장치 제조업체다.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이사는 "정음공장은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해 지역과 함께 커나가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정음시장은 "다원시스 정음공장의 전동차 생산이 시작되고 관련 기업 입주가 본격화되면 정음시가 전동차 생산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다원시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음=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초보농부 13개 가족 대상 익산시, '농업 교실' 열어

익산시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자녀와 함께하는 초보농부 도시농업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주말가족농장 회원 가운데 농사경험이 적고 중학생 이하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13개 가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3일 텃밭 설계 및 씨앗뿌리기로 첫 수업이 진행된 이번 교실은 오는 6월 11일까지 운영된다.

5월에는 감사의 꽃 화분 만들기 및 편지 쓰기, 6월에는 작물 수확하기 등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농사기초부터 작물 재배 및 관리, 수확요령까지 초보농부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이론과 현장실습교육으로 구성된 도시민들의 텃밭 가꾸기 능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업의 소중함을 배우고 아이들에게는 창의성과 인성을 키우는 도시농업 교실 프로그램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군산대, '혁신성장청년인재 양성사업' 선정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8대 분야 1400명 교육

군산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추진하는 '2019년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양성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선도사업 분야의 산업 맞춤형 청년 인재 양성고 취업 연계를 위해 추진됐다.

청년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실무 프로젝트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군산대는 드론 및 자율주행차 분야로 교육을 통해 통합교육모델을 제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재를 배출·취업시킬 계획이다.

군산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장민석 교수팀은 'GCS기반 드론 SW 개발자 양성과정'과 '프로젝트 지향 자율주행차 전문인력 양성과정'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총 960시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양성' 사업에 26개 교육기관, 33개 교육과정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AR·VR,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공장 등 혁신성장 8대 분야 핵심 인재 1400명을 양성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순창군, 목조·고택 소유자 문화재 보존 교육

순창군이 최근 지역 목조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 및 고택 문화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순창향교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사건 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문화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응 방안을 교육하기 위한 차원이다.

교육은 (재)문화재아우리치연구소 문화재돌봄 동부권사업단(단장 전경미)이 주관했다.

교육에서 문화재아우리치연구소 문화재돌봄 동부권사업단장인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전경미 교수가 문화재 관리방법에 대해 특강했다.

또 소화기 사용법과 창호지 교체 요령 등 실습교육도 이어졌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 군산시, '청암산 생태여행' 무료 운영

군산시가 오는 11월까지 청암산과 군산호수 일원에서 '에코매니저와 함께하는 청암산 생태여행'을 무료로 운영한다.

청암산 생태여행은 '청암산 생태파수꾼 이야기'라는 부제로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접목한 인문학이 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주 6회(화·목·토, 오전 10시~오후 2시) 진행된다.

코스는 원시적인 생태자원이 가득한 군산호수 입구·유실수원·대나무 숲·버

드나무 군락지까지로, 에코매니저의 설명 이후 자유탐방으로 이뤄진다.

생태여행은 최소 3인 이상 신청해야 하며, 예약 방법은 시 환경정책과(063-454-4252)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청암산 생태탐방을 보완·발굴하기 위해 습지생태학습장을 활용한 습지 관찰 체험 프로그램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1천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매매 - 1억 4000만원 (일시불 조정가)

## 남구 덕남동 임야, 투자

- 3.3㎡당 25만원,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